

[31~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겨울 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쭉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 소리가 들린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 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 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축수가
 짜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러 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A]

[B]

[C]

[D]

[E]

- 광재구, 「구두 한 켤레의 시」 -

(나)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울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가,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 영: 고개.

(다)

얕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빛과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러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묻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 이광명, 「북찬가(北竄歌)」 -

- * 꿈을 둘러 상시과저: 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 * 학발자안: 머리가 하얗게 썬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 * 안족서신: 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 * 일반고사: 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3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12수능 31~36번

(가) -각재구, 구두 한 컬레의 시 -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소리가 묻어 있다**

차례를 지내고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인가 보네요
구두에 뭐가 묻어있죠?
고향의 저문 강물소리.
오면서 강을 밟고 왔나보네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강물소리가 아니라
저문 강물소리라고 한 건 이유가 있겠죠
이 시에선 안 나오는데 뭐가 이유가 있겠죠

강물소리가 묻어있다 - 공감각, 형상화
저문 - 하강이미지

**겨울보리 파랗게 꽃힌 강둑에서
살얼음만 몇 발자국 밟고 왔는데
쓸골 상엿집 흰 눈 속을 넘을 때도
골목 앞 보세점 흐린 불빛 아래서도
찰랑찰랑 강물소리가 들린다**

강물을 푹 밟은 것도 아니고 살얼음만 밟은건데 계속 강물소리가 들리네요

파랗게 - 색채
흰 눈 - 색채, 계절감
불빛 - 시각
찰랑찰랑 - 음성상징어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나는 못 들었는데 신기하게 구두는 그 강물소리를 들었나보네요

구두가 들음 - 의인

**구두는 지금 황혼
뒤축의 꿈이 몇번 수습되고
지난 가을 터진 가슴의 어둠 새로
누군가의 살아있는 오늘의 부끄러운 촉수가
싸리 유채 꽃잎처럼 꿈틀댄다**

구두는 지금 황혼입니다.
황혼은 해가 저문걸 의미하니까
인생의 후반부 정도를 의미하겠네요
인생의 황혼기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ㅋㅋ
간단히 말하면 구두가 오래됐다 이말이에요
오래 신었으니까 뒤축이 터져서 몇번 덧땀나보네요
지난 가을에 구두가 터졌었나보네요
가슴이 터졌다고 했으니 옆구리쯤이 터졌겠죠
구두가 터지면 보이는 촉수는 당연히 화자의 발가락이겠죠
근데 그 촉수가 '부끄럽다'고 했네요
이 시의 핵심입니다
화자는 자신을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싸리 어찌구는 그냥 발가락이 꿈틀대는 걸 비유한 거구요

부끄러운 - 정서 직접
발가락을 촉수에 비유

**고향 텃밭의 허름한 꽃과 어둠과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점 꾸려주지 않고
영하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소리를 들려준다.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온 나는
고향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고
오직 구두만이 강물소리를 내게 들려주네요

이 시를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에 갔다왔는데 나는 강물소리를 못 듣고 구두는 들었다.
2. 나는 부끄럽다.
3. 나는 겨울을 건성으로 보냈다.

이 세 개를 종합해보면

내가 겨울을 건성으로 보냈다는 건

고향에 갔다왔으면서도 강물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부끄러운 거라는 게 이 시의 내용이겠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강물소리를 고향을 대표하는 것이겠고

첫연에서 저문 강물소리라고 표현했으니

고향이 저물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신은 고향이 망가졌는데도 못 느낀 걸 부끄러워하는 내용이네요

마지막연에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여기에서 나는 예전에 고향을 왔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전에 왔으니 고향이 이상해졌다는 걸 눈치챘을텐데도 모른다는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쓴 구절인 듯 싶네요.

그리고 '출렁출렁 아니 덜그럭덜그럭'에서

출렁출렁은 강물소리 덜그럭덜그럭은 당연히 구두소리를 의미하겠죠.

구두는 초면 나는 구면 - 대구, 대조

고향은 ~를 꾸려주지 않고 - 의인

출렁출렁, 덜그럭덜그럭 - 음성상징어

시 전체적으로 감각적인 표현들이 많이 쓰였네요.

(나) - 김동환, 산 너머 남촌에는 -

<1>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로 오네

꽃 피는 사월이면 진달래 향기

밀 익는 오월이면 보리 내음새

어느 것 한 가진들 실어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좋데나

남촌에서 불어오는 남풍에서 온갖 향기를 느끼고 있네요 ㅎㅎ

진달래 향기 - 계절감, 후각

내음새 - 후각, 시적허용

안 오리 - 설의

불 제, 좋데나 - 사투리

<2>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저 하늘 저 빛깔이 저리 고을까
금잔디 너른 벌엔 호랑나비 떼
버들밭 실개천엔 종달새 노래
어느 것 한 가진들 들려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종데나

남촌은 냄새뿐만 아니라 하늘빛깔도 곱고 금잔디에 호랑나비 떼에 종달새 노래까지!!
온갖 아름다운게 다 있네요 ㅋㅋ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어느 것 한가진들 ~ 안 오리, 남촌서 남풍 불 제 나는 종
데나 - 반복

고을까 - 설의

금잔디 - 색채

호랑나비 - 시각

종달새 노래 - 청각

<3>

산 너머 남촌에는 배나무 있고
배나무꽃 아래엔 누가 섰다기,
그리운 생각에 영(嶺)*에 오르니
구름에 가리어 아니 보이나
끊었다 이어 오는 가는 노래
바람을 타고서 고이 들리데

예전에 남촌근처에 살았나봐요 ㅎㅎ

그림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ㅎㅎ

언덕에 올라 다시 남촌에 대한 기억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ㅎㅎ

산 너머 남촌에는 - 반복

각 연마다 시작은 '산 너머 남촌에는'이라는 구절로.

마무리는 '~하데' 라는 표현을 써서 마무리 하고 있네요

글 전체에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통일감과 운율을 주고 있죠 ㅎㅎ

그리고 계속 4음보를 정확하게 쓰고 있구요 ㅎㅎ

대화체도 사용하고 있네요 ㅎㅎ

(다) - 이광명, 북찬가(北宸歌) -

앉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밤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들너 상시(常時)과저*
학발자안(鶴髮慈顏)* 못 뵈거든 안족서신(雁足書信)*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노라면 ㉡달이 넘네

무슨 생각하느라 앉은 자리에서 해가 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잠도 못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데 무슨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꿈에선 매일 만나니까 꿈을 현실로 삼고싶다고 하네요
그니까 지금 누군가와 이별한 상황이겠죠
이런 걸 부재라고 하죠 ㅎㅎ
시에서 없으면 뭐다? 부재 ㅋ
암튼 다시 돌아와서 누구랑 이별했냐면 어머니랑 이별했네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지만 오지 않는 상황이군요 ㅠㅠ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老親)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오랜만에 고어가 나오니까 알아듣기가 좀 힘들지만
어차피 고전은 대강 스토리만 알면되니까 상관없습니다 ㅋㅋ
못 본지 오래됐는데 보면 속이 시원할까.
늙은 어머니 소식 내가 모르는데 어머니도 내 소식 모르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네요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一般苦思)*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산과 강물로 막혀있어서 못간다는 얘기겠죠?
못 만나니까 고통스러운데 누가 헤아려줄까.
어머니가 남쪽에 계신가 보네요
시냇물과 새가 되어 어머니가 계신 집근처로 가고 싶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는 'i'가 아니라 시냇물입니다 ㅎㅎ
흐르는 'i'라고 하면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ㅋㅋ

암튼 이 시는 '09수능 작자미상의 시 춘면곡'과 매우 유사한 구절이 많네요
 춘면곡이 있는 페이지를 펴서 비교하면서 봐주세요 ㅎㅎ
 일단 춘면곡도 님을 그리워해서 잠 못자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ㅎㅎ
 그리고 역시 꿈에서는 님을 만나고, 꿈을 현실로 삼고 싶어합니다 ㅋㅋ
 구름산이 첩첩하여 천리몽을 가리고 있구요
 '흰 달은 창창하여 두마음을 비추었다' 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달이 두마음을 비추었다라는 건 나와 님을 연결되었다고 믿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거겠
 죠 ㅎㅎ
 그걸 생각해보면 여기서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라는
 구절이 왜 뜬금없이 나왔는지 알 수 있겠죠 ㅎㅎ
 단순히 어머님이 계신 곳에도 달이 비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아니라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화자의 심리상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특정 자연물이 되어서 님의 곁에 있고 싶다는 구절 또한 같습
 니다 ㅎㅎ
 기출을 반복해서 보면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지문에서도 이런 유사한 패턴들을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ㅎㅎ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기출을 반복하다보면 유사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눈
 에 보이게 되고 그게 실력향상으로 이어집니다 ㅎㅎ

문노라 ~ 비추는가 - 도치, 설의
 흐르듯 ~ 노닐고저 - 대구, 영탄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삼
 여의(如意) 잃은 응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니 늙은 어머니의 심정을 일러 무엇하리 라고 하고 있는데요
 말이 너무 어렵죠? ㅠㅠ 내 마음도 괴롭지만 노친의 심정을 얼마나 심할까 그런 뜻이겠죠
 자식이 부모생각해봤자 부모가 자식생각하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ㅠㅠ
 암튼 그 뒤에는 여의주를 잃은 응이고, 노 없는 배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신이 이렇다는 거겠죠? 어머니의 심정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바로 뒷구절을 보
 면 자신의 상태를 나타낸게 더 맞는 것 같네요 ㅎㅎ
 가을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머물지 못하고 갈데가 없다는 거네요
 오랜만에 고어가 꽤 많이 나온 작품이었네요 휴 ㅋㅋ
 그렇지만 고전은 큰 줄거리만 알면 되니까 쫄 필요 없어요 ㅋㅋ

여의 ~ 아닌가 - 대구, 설의

㉔31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을 통해 현실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 (나)가 해당이 안되죠 ㅎㅎ 죄다 긍정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ㅋㅋ

② 대조적 소재의 열거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시적 긴장감은 판단부위가 아니고 대조적 소재의 열거가 있으나만 찾으시면 됩니다 ㅎㅎ 근데 대조적 소재도 없고 그걸 여러개 나열한 것도 없네요 ㅎㅎ

③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있는 게 없구요 그리움은 (나),(다)에 있습니다 ㅎㅎ (가)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긴 합니다만 명확하진 않네요 ㅋㅋ

④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 내고 있다.

- 일상생활의 관찰은 (나)에만 있고 사물에서 삶의 교훈을 얻는 건 (가)에만 있네요 ㅎㅎ

⑤ 친숙한 사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 (가)는 구두를 통해 고향을, (나)는 호랑나비, 배나무 등을 통해 남촌을, (다)는 달, 구름 등을 통해 남천을 환기시키고 있네요 ㅎㅎ

환기시킨다는 건 별 의미없고 그냥 나와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여기서 사물이라는 건 꼭 물건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소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ㅎㅎ

답 5번.

㉔32번.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보리'와 (나)의 '보리'는 두 작품의 계절적 배경이 동일함을 알려 준다.

- (가)는 겨울 보리고 (나)는 오월의 보리입니다 ㅋㅋ

② (가)의 '꿈'과 (다)의 '꿈'은 출세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다.

- 미쳤군요 ㅋㅋ

③ (가)의 '강물 소리'와 (나)의 '노래'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 (가)의 강물소리는 어떤 것인가요? 들어야했는데 못 들은 소리잖아요 ㅎㅎ 들어야했다는 것은 듣고싶었다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ㅎㅎ 그리고 강물소리는 고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화자는 고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고향이 망가진 모습을 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걸 그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을 안 좋게 생각했다면 망가지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걸 모른다고 한들 부끄러울 필요가 없겠죠 ㅎㅎ (나)의 노래는 말할 것도 없이 상당히 긍정적이죠 ㅎㅎ 너무 좋아하잖아요 ㅋㅋ 예전에는 긍정적이다는 선지는 웬만하면 잘 안 나왔고 명확한 것만 물어봤는데 이 선지는 좀 그렇네요.. ㅋㅋ 뭐 강물소리를 그리워하는 대상으로 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도 되긴합니다 ㅎㅎ 아마 출제자가 출제할 때는 저문 강의 의미를 그냥 해가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출제했나보네요.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가)시는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시가 되고 구두는 고향에 대한 정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물이 되겠죠 ㅎㅎ 수능에서 준 시간 내에서는 깊은 의미보다는 표면적인 의미만 파악하고 넘어가라고 하는 의사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ㅎㅎ 평가원에서는 저문 강물의 의미까지 파악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나보네요.

답에 맞춰서 시 해설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대로 두어 평가원의 의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예로 남기겠습니다 ㅋㅋ 제 해설이 틀린건 아닙니다.. ㅠㅠㅋㅋ

④ (나)의 ‘남풍’과 (다)의 ‘추풍’은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와 화자를 매개한다.

- 남풍은 맞구요 추풍은 아니네요 ㅎㅎ 추풍 같은 경우는 낙엽을 방황하게 하는 대상이잖아요 ㅎㅎ 전혀 상관없죠 ㅎㅎ

⑤ (나)의 ‘구름’과 (다)의 ‘구름’은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 (나)의 구름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구름은 풍경은 안 보이게 하지만 소리를 차단하진 않습니다. 구름이 있다 해도 소통은 전혀 문제 없는거죠 ㅎㅎ (다)에서 ‘따르고 싶구나 뜨는 구름 남천으로 닫는구나’에서 보면 구름은 따르고싶은 대상. 그리고 남천은 화자가 가고 싶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자유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ㅎㅎ

답 3번.

㉔33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빈번히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맞죠 ㅋㅋ 이 선지가 틀릴 수가 있나요? ㅋㅋ 시에선 웬만하면 무조건 맞는 선지네요 ㅋㅋ

② (가)는 (나)와 달리 의성어의 변화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 (가)에 출렁출렁 덜그덕 있네요 ㅋㅋ (나)는 없구요 ㅋㅋ

③ (가)는 (나)와 달리 연을 구분하지 않고 성찰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다.

- 눈 있으면 보이죠 ㅋㅋ

④ (나)는 (가)와 달리 새로운 소재가 추가될 때마다 어조에 변화를 주고 있다.

- (나) 설명할 때 계속 어조 똑같다고 말했죠? ㅋㅋ

⑤ (나)는 (가)에 비해 대구와 부드러운 어감의 표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선지4번이랑 비슷하네요 ㅋㅋ (나) 계속 똑같고 대구 많았죠 ㅋㅋ 부드러운 어감도 맞네요 ㅎㅎ 시적허용도 많이 쓰고 울림소리도 많죠 ㅎㅎ ‘섰다가’ 같은 경우는 그 체랑 비슷하거 ㅋㅋㅋ

답 4번.

㉔34번. <보기>의 ‘하이데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하이데거에게 예술은 ‘존재자의 존재’를 드러내 준다. 그에 따르면 고희의 ‘구두’ 그림에는 단순히 도구로서의 구두[=존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림 속의 구두에는 들일을 나서는 농부의 고단한 삶, 해질 무렵 들길을 걷는 그의 고독이 드러나 있으며, 아울러 대지의 습기와 다 익은 곡식의 풍요로움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구두에 감추어진 ‘존재’가 눈앞에 펼쳐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 (가)사에서 구두가 하는 역할이 뭔지 잘 생각해보면 될 것 같네요 ㅎㅎ 구두의 의미는 화자에서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역할이죠. 답 몇번? 오번~ ㅋㅋ

- ① [A] : 구두 밑바닥에 녹아드는 살얼음으로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군.
- ② [B] :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 여러 번의 수선을 거친 구두에는 구두의 도구성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견해가 나타나 있군.
- ④ [D] : 고향 텃밭의 허름함과 흰 구두를 비교하여 초면과 구면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말하고 있군.
- ⑤ [E] : 고향에 대해 무심했던 삶 속에서도 고향이 화자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음이 낡은 구두에서 드러나고 있군.

답 5번.

㉔35번. (나)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 <2>, <3> 모두 세 연씩으로, 각 연은 두 행씩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 눈 뜨세요 보면 알죠? ㅇㅋ
- ② '산 너머 남촌에는'이 <1>, <2>, <3>의 1연마다 반복되어 시 전체의 유기적 연관성을 강화하고 있다.
- 본문에서 설명했죠 통일성있다고 ㅎㅎ
- ③ <1>, <2>, <3>의 각 3연이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어 후렴구로 기능하고 있다.
- 하아.. 눈뜨면 보이죠? 3연은 달라요!! ㅋㅋ
- ④ 시어와 표현 면에서 <1>과 <2>는 유사성이 크지만, <3>은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 네네
- ⑤ <1>의 2연은 문장 구조가 같은 두 행이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2>의 2연도 마찬가지이다.
- 그러하다

답 3번.

㉔36번. (다)의 ㉠~㉣ 중 함축하는 의미가 동일한 것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

㉠, ㉡ 은 그냥 시간의 의미고, ㉢은 방해물의 의미, ㉣, ㉤은 화자가 되고 싶은 거네요 ㅎㅎ
㉠, ㉡은 별 의미없는 거니까 물어볼 리가 없죠 ㅋㅋ 그니까 선지에 없구요
답은 ㉣, ㉤ 5번이 되겠네요 ㅋㅋ

답 5번.